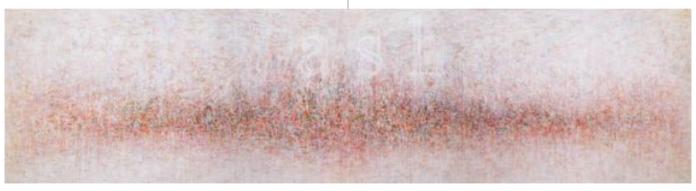
한지석·최종운U

EXHIBITION

2011 / 09 / 01 ART IN CULTURE

사라지는 것이 살아지는 것이다



한지석 <Flowing Field> 천에 유채 200x780cm 2011

한지석

최종운